

“정부, 비축미 5만톤 방출 철회를”

김중희 의원 “국회 재검토 요구 무시한 일방통행 결정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 보장·책임자 공개사과해야”

정부의 비축미 5만 톤 방출은 농민의 절규와 국회의 재검토 요구를 무시한 일방통행식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중희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19일 정부의 이날 말 비축미 5만 톤 방출과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 등에 비수 뜻은 문재인 정부의 비축미 5만 톤 방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은 고작 192원 오른 18만1922원이었다. 농민의 절

규와 국회의 강한 반발이 잇따르자 한 발 물러서 물가상승률을 절반 반영한 19만6000원을 목표가격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두 차례의 쌀 목표가격 변동에 이어 11월말 5만톤 비축미 방출은 정교한 각본을 바탕으로 실행되는 고도의 기만극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 들 중 하나가 총감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비축미 방출은 수확기 기간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농민과 국회의 비판이 거세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쌀값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쌀값을 19만4000원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역대 군사정권도, 보수정권도 차마 쓰지 않았던 ‘수확기 쌀 방출’을 ‘춥불정권’이라고 지칭하는 문재인 정부가 실행하고 있다”고 칼날선 목소리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게호 장관은 국회에서 비축미 5만톤 방출을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는데 며칠 후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측면, 물가당국의 요청을 무작정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측면이 있었다고 변명했다”며 “이 장

관 스스로 물가당국의 꼭두각시임을, 공공비축미 방출을 지시한 강력한 배후세력이 있음을 시인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농민과 노동자, 건전한 민주의식을 갖춘 시민들이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출범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농정의 대변화와 농민배신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최종책임은 쌀값을 농민에게 월급, 쌀 목표가격 21만원 이라는 약속들을 헌신적 처럼 버린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을 즉각 철회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을 보장 △공공비축미 방출을 결정할 책임자 공개 사과와 즉각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진성 기자

“학생중심 프로그램 강화해야”

도의회 교육위, 교육문화회관 행감서... 교원연수원 등에 “교원·학생·학부모가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 편성해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19일 오전,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전북교육문화회관을 비롯해 6개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학생중심 프로그램과 도민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전북교육문화회관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전주다문화센터와 함께 다문화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품을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4차산업혁명에 맞춰 미래전략 교육인 코딩교육을 문화회관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평생교육 강사와 관련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를 다양하게 공개모집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특히, 강사수당에 대한 적절한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모의법정 체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메이크업 프로그램을 고등학생이나 졸업생들에게 실시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실시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며 지적했다.

진형석(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교육문화회관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 “프로그램 1회 실시

로 자유학기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지가 의문이 든다.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교육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도민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수강료를 받아야 함에도 수강료가 0원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수강료를 받지 않는다면 학생중심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현재 교육문화회관 도서관은 이용 학생수가 줄어 들고 있음에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조금 더 내실있는 학생중심 도서관 운영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디지털 사회의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코딩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코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하고, 특히, 코딩 경진대회를 개최해 코딩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후 전북교원연수원을 비롯한 직속기관에 대해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해야 한다”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되도록 직속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청년문제와 진보정치의 만남 위한 제언’ 정의를당 전주시위원회와 전북대학교 노사관계 전문육성사업단 주최로 시행된 ‘청년 문제와 진보정치의 만남을 위한 제언’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초청 강연회가 19일 전주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박물관 강당에서 실시된 가운데 심상정 의원이 강연을 펼치고 있다.

“삼성바이오 회계감사 법인 처벌 ‘솜방망이’”

평화당 정동영 대표 “과징금·감사제도에 그쳐 증선위는 해체·국회 처벌 강화 입법 나서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사건의 회계감사를 담당 한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이면 증선위는 해체해야 하고, 국회가 회계조작,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19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바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삼정KPMG 회계법인에 과징금 1억7000만원과 삼바에 대한 감사제한 5년 처분을 내렸고, 안전회계법인은 과징금 없이 삼바에 대한 감사제한 3년 처분을 내렸다”며 “솜방망이 처벌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미국은 엔론 사태 당시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5000억 가량의 사기분식, 회계분식을 저지른 CEO에 대해 징역 24년형을 선고했

며, 엔론의 회계감사를 담당 한 아서 앤더슨은 7조 2천억원의 합의금을 물고 문을 닫았다”며 “이렇게 회계조작, 부실감사를 엄벌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회가 삼바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회계조작, 부실감사를 저지른 기업과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평화당이 회계조작과 부실감사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입법 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원광대,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명예 법학박사 학위 수여

원광대학교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명예 법학박사 학위수여식을 19일 송산기념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1988년 사법시험 합격 후 무변촌 익산에서 변호사사무소를 개업해 무료변론 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의 길을 걷다가 2008년 익산갑 지역 국회의원에 당선돼 민주당 대변인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사무총장, 인권위원장을 거치고, 국회 3대 핵심 상임위원 예결위, 운영위, 법사위 간사를 역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입법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개혁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익산에서 변호사 활동 당시 원광대 법학과 겸임교수를 병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생생하게 살



원광대학교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명예 법학박사 학위수여식을 19일 송산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아 움직이는 법의 다양한 모습을 전달함으로써 법학도들이 현실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원광대는 법조인으로서 약자를 위한 무료 변론과 소외된 지역민들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데 노력하고,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는 입법을 통한 약자의 인권 보호와 우리나라 사법제도 개혁에 기여하는 등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

가해 이춘석 의원에게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김도중 총장은 학위 수여사를 통해 “이춘석 의원은 우리 대학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지덕겸수 및 도의실천’을 몸소 실천하고, 법조계에 첫발을 디딜 때부터 균형 잡힌 비판의식과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추었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www.fplove.or.kr

농지연금 신청하고~ 생활자금 매월 받고~

부모님 통장으로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힘든 농사일을 계속 해오신 우리 부모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으로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주세요.

농지연금이란? f6 농지은행 kr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제도로서, 경직이나 일대로 인한 추가수익도 가능하고 부부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신청자격: 65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